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 (1)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 (2)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 (3)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 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 (4)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 (5)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 (1)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 (2)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뵙니다
- (3)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 (4)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7월 9일(월) 기도 담당 : 김준현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75장	다	같	이
기 도	최길선	집사	
성 경 봉 독 욥기 38:1~3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성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6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욥기 38:1~3>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
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7월 7일(토)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와 아뢰는 모든 간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만물과 인생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면 인간의 무지무능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겸손과 철저한 순종으로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문안 공동체가 말씀과 섬김과 사랑과 기도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과 사회 속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병상 중에 계시는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새 성전건축과 영장리 추모관 건축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예정된 시간이 완공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쉬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새 성전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변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의 불편함과 분노가 기대함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당면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 제직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제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헌신이 주 앞에 헛되지 않음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작되는 유아, 유치 2부의 여름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의 수련회와 대학, 청년부의 두나미스 사역과 농촌 선교활동을 통해 영적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정 동안 안전을 지켜 주시고 준비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 헌신된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한 땅을 비롯하여 지구촌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